

STVA  
통쾌하고 예리한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하여

## 총여학생회론

주는 이: 쪽지

받는 이: 통쾌하고 예리한 총여학생회 선거를 위해 모인 이들

\* 이 글은 델타 페미니스트와 가진 정책 간담회 때 나왔던 총여학생회론과 그에 대한 선본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할 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1. 이제까지의 학생회는 학생사회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학생회의 존재, 그래 우리가 처음에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들을 따뜻하게 받아줬던 것은 학교측이라기 보다는 학생회였다. 학생회에서 그때 신입생들이 뻔뻔하고 심심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었고, 어색했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따뜻하고 친근한 학생회를 왜 우리는 학생사회의 모든 권력의 독점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제까지 너무나도 많이 되어온 얘기라서 더 이상 학생회에 대한 비판은 지겨울 지도 모른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학생회론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선거 자체의 실물적인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찰떡의 양꼬와 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

굳이 학생회가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세워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80년대 후반 독재와 민주주의 대립구도라는 한국사회 속에서 사회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학생들의 요구, 강력한 억압체제로서의 학교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발현하는 공간으로서 강력하고 선도적인 학생조직이 필요했고, 그것이 학생회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학생회는 학교당국과의 투쟁을 통해 학생회의 공간과 재정을 확보해 냈고, 그렇게 해서 재정적, 공간적 기반들을 학생회는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학생회가 권력의 독점체라고 말하는 거지? 학생회가 세워질 당시 필요했던 학생회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사회에 대한, 그리고 학교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재정적, 공간적 기반으로 활동해야 하는 조직체였다.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정당성은 시기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정당성은 언제나 영구히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학생회가 조직된 이후로 학생회가 아닌 다양한 주제별로 자치단체들이 생겨났고, 역사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학생사회내에서 재정과 공간을 독점하고 있는 학생회가 아닌 자치단체들은 학생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간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 또한 선거시기에 보장된 대표성(50%의 투표율을 겨우 넘어서 당선된 학생회의 대표성)으로 학생회는 1년 동안 자신들의 활동들을 모두 학생들에게 인정받은 듯이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한 정치적 활동들을 해나간다.

요즘 들어서 이러한 학생사회 내에서 권력의 독점체로서의 학생회 질서에 대한 비판은 운동패나 한다는 입가진 자들은 누구나 얘기하고 있고, 그 비판에 대한 실물적인 활동으로 드러났던 첫 번째는 총학에서 실시한 예산 자치체였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회에 대한 비판 속에서도 여전히 단일한 단위로서의 학생대중을 상징하는 기존 학생회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세대학교, 그 중에서도 6천 여학우라는 단일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학생들 사이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과 학생회는 6천 여학우들을 대리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것이다.

## 2. 총여학생회로 가는 자치질서, 자치질서로 가는 총여학생회

하지만 우리는 학생회 질서를 나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총여학생회는 학생회이기도 하지만 여성주의적 공간, 여성운동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총여학생회는 여성운동이 더욱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지자, 모든 여성들, 즉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적들(가부장제, 남성중심적 제도, 성차별 문화 등)으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되찾아오고 그것을 방어하는데 있어 강력한 행위자여야 한다. 우리에게 여성이라는 것은 개인인 여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운동은 개인으로서 여성의 고민과 불편함들을 여성 일반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학내 여성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총여학생회의 존재가 다양한 관점과 정치적 입장을 기반으로 학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자치단체들의 활동을 억압하거나 하나로 아우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6천 여학우 개개인의 집합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집단으로서의 여성을 대표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여학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대신해서 해주는 동사무소가 아닌 정치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가 준비하는 총여는 극우 보수 기독교 여성들이 원하는 순결서약식을 같이 하지는 제안을 여학우들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총여는 여성에 관련한 학내의 흐름들에 대해 논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통로를 만들어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정치성을 드러내고 여학우들에게 동의받아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대표성을 주장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총여는 구체적인 개인 몇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집단으로서의 여성을 대표하고,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집단으로서의 여성, 그 여성을 대표하는 운동에 대해 언제나 논쟁,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기에 우리는 선거에서 동의받은 우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내년 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우리의 정치적 입장은 완결성을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하는 총여는 우리의 활동에 대한 활발한 비판과 논쟁이 가능한 공간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안착화시켜야 하며 현재 학생회가 독점하고 있는 재정과 공간, 그리고 공신력(명목의 상징성으로 드러나는)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또한 제도적으로 안착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치질서로 가는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3. 자치질서로 가는 총여학생회를 만들기 위한 세밀한 검토

### 3-1. 공간, 재정, 공신력

총여로 집중되는 공간과 재정, 그리고 여성운동 단위의 대표체라는 위상이 가지고 있는 공신력을 독점하지 않는 총여가 되기 위해서 공간, 재정, 공신력을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공신력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할 듯) 아마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산자치제처럼 정기적으로 예산자치제 테이블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학내의 여성자치단체들 혹은 일시적으로 모인 프로젝트 모임들(예를 들면 여성학 수업 조모임)이 자치적으로 재정과 공간,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 3-2. 총여의 견제기구가 필요하다.

### 3-3. 총여의 정치성

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할까?

제도적 장치

→ 자치질서에 대한 고민  
예산자치제. 사업자치제.  
(재정자치?)

table x  
77x